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월 ~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콜롬비아, INVIMA, 인증, FTA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콜롬비아, INVIMA, 인증, FTA 등



##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07  
한-콜롬비아 FTA 발효

2017.02  
콜롬비아 진출을 위해  
인증서 발급 필요



핵심이슈  
도출

**“콜롬비아, INVIMA 취득 시 복잡한 절차로  
수출 장벽 높아”**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 콜롬비아, INVIMA 취득 시 복잡한 절차로 수출 장벽 높아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었다.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797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면서 중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의 수출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경우 식품, 화장품, 의약품 수입 시 인비마(INVIMA) 인증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 취득이 필요하다. INVIMA는 콜롬비아 식품·의약품의 안정성 평가 및 유통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식품을 포함한 화장품, 의약품 등을 유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검사 및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산 수출 제품은 검사 및 등록 절차를 통과해야한다.

인비마(INVIMA) 인증서 취득을 위해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성분이 다르면 개별적으로 식약청 인증서를 획득해야 하며, 제품 제조사 인증서, 제품 판매 가능 확인서, 제품 라벨 디자인 등의 서류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한다. 인증서 취득은 그 절차가 까다로운 뿐만 아니라 준비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제품 당 약 1,000달러의 고비용으로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인증서 취득이 복잡해 여전히 수출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 인비마(INVIMA)를 제외한 전자-가전 제품 대상 레티에(RETIE), 레티쿠(RETIQ)-, 레티랍(RETIRAP), 가족 반입 관련 이카(ICA)인증서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인증서 취득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한국 수출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콜롬비아 수입업자들의 경우에도 값비싼 인증서 비용과 까다로운 서류 요구로 한국에서 인비마(INVIMA) 인증을 취득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관련 제품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출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번역 업무 및 공식 한-서 번역가 증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추가적으로 새로운 인증제도 혹은 상호인증제도를 도입한다면 한국 기업에게는 수출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